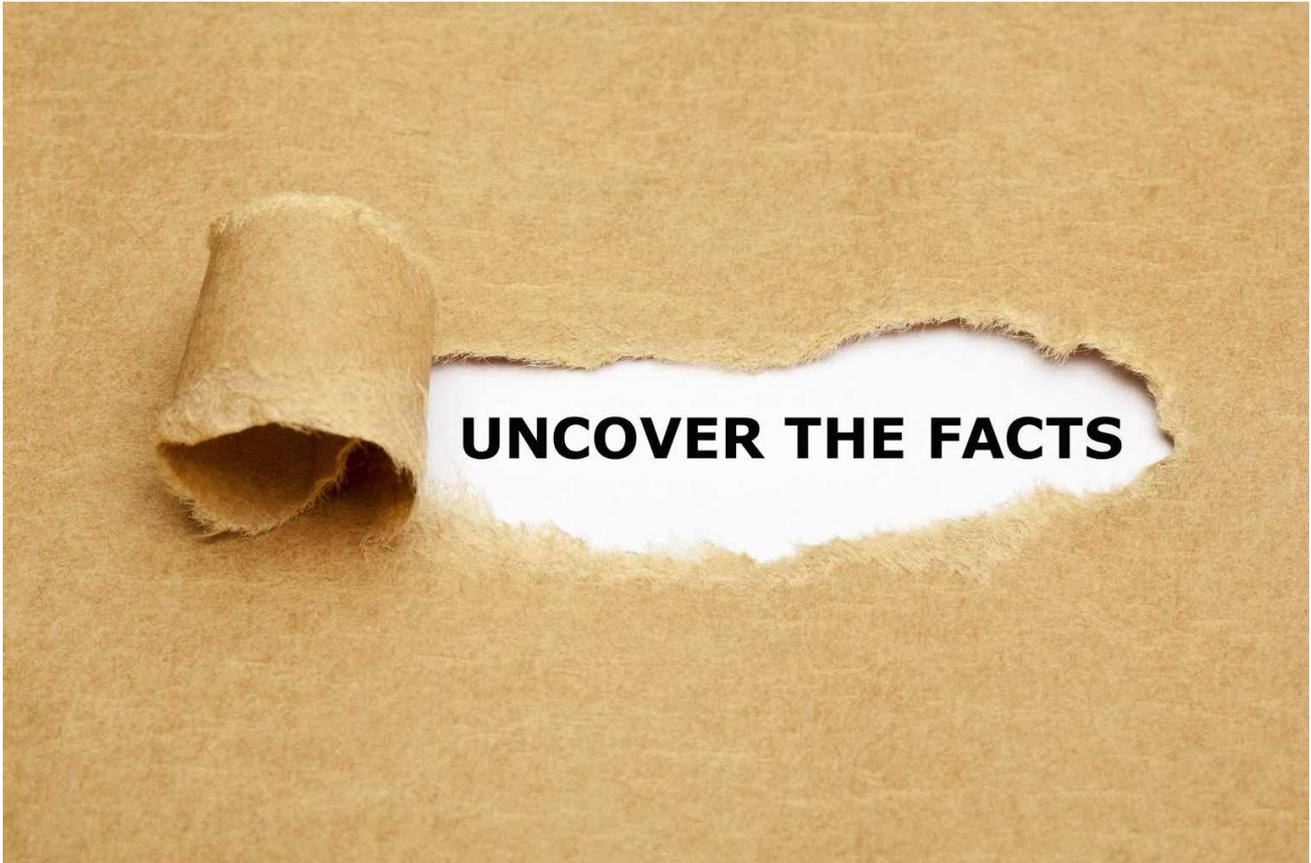


numbers 제 91호



주요 내용

2021. 04.16

1. 이번 주 주제 : [재난 위기 경험이 종교성과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을 강화시켰다!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및 미국 교회의 대면 예배 현황]
- 미국의 개신교인,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코로나19 대응 자랑스럽다' 86%
[공공/민간 부분 부패 실태]
-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공공 행정 분야, '건축/건설 공사 부문'과 '법조 부문'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코로나19,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 강화시켰다!

전 세계적 또는 국가적 재난과 재해는 인류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다 준다. 이별, 사별, 단절, 외로움, 고통, 슬픔, 아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고통을 던져주고 있다. 총 확진자 수가 1억 4천 여명에 다다르고, 사망자는 300만 명에 이르렀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형성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경제적, 심리적,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의 퓨리서치의 조사(세계 14개 경제 선진국 대상)는 코로나19 같은 인류가 당면한 세계적 위기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종교성 변화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름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위기 경험을 통해 종교적 신앙(종교성)이 '강해졌다'는 조사 결과는 곱씹어 볼만 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91호에서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 속에서 통해 종교의 근원적인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는 마음에서 이번 주 보고서를 준비하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 등 세계적 위험 요인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거의 없다면,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세계적 위험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들을 국제 조사 기관 등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조사 기관인 퓨리서치(Pew Research)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위기가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심(종교성)과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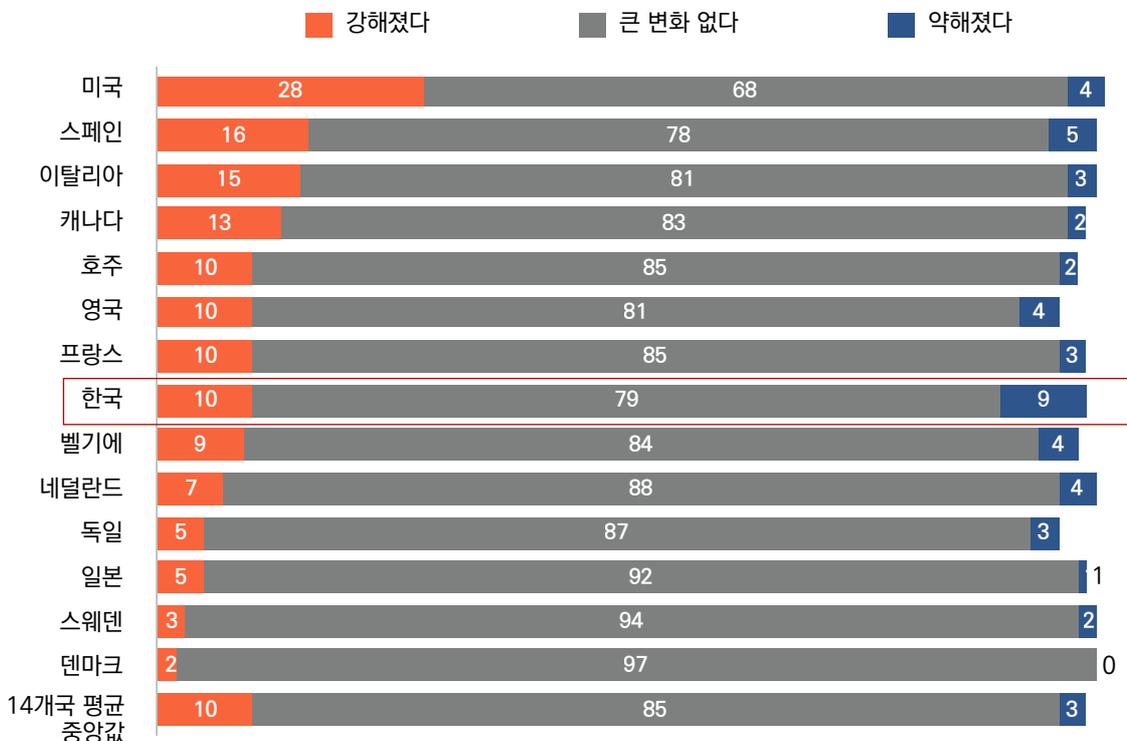
1



코로나19,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을 강화시켰다!

- 퓨리서치가 14개 경제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종교와 가족 관계 등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14개국 모두 종교적 신앙이 '강해졌다'는 응답이 '약해졌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이 세계인들로 하여금 종교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응답에 '미국'이 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페인' 16%, '이탈리아' 15% 등의 순이었다. 14개국 평균(중앙값)은 10%였다.
- 한국은 종교적 믿음이 '강해졌다' 10%, '약해졌다' 9%로 14개국 중 '약해졌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 특히 작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본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국민의 종교성이 강해진 점은 주목할 지표이다.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자신의 종교적 신앙 변화(14개 경제 선진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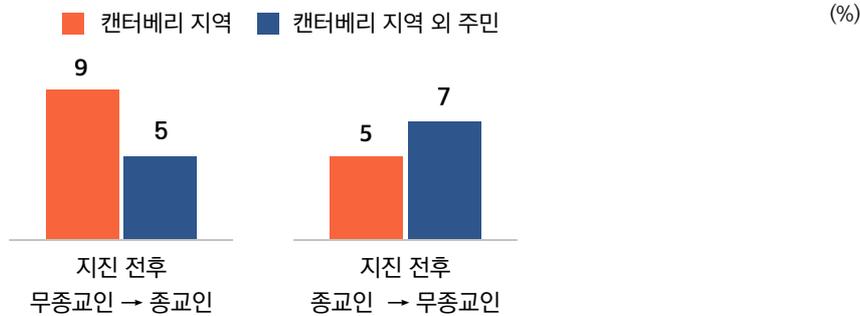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PEW RESEARCH CENTER, 'More Americans Than People in Other Advanced Economies Say COVID-19 Has Strengthened Religious Faith' 2021.01.27. (경제 선진국 14개국, 18세 이상 성인 14,276명, 전화 조사, 2020.6.10.-08.03)

**본 조사에서는 평균을 중앙값으로 계산하였는데, 중앙값은 조사한 결과들을 정렬하여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값을 말함

● 자연재해 등의 위기 경험, ‘무종교인→종교인’ 전환율 높인다!

- 삶에 닥치는 자연재해 등을 통한 위기 경험이 종교적 신앙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제학술지 ‘퍼블릭 라이브러리 오브 사이언스’(PLOS)가 게재한 2010년과 2011년 사이 뉴질랜드 캔터베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전후 주민들의 종교 신앙의 변화 관련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 조사 결과 지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캔터베리 주민 중 지진 전(2009년) 종교인이 아니었다가 지진 후(2011년) 종교인으로 전환한 비율이 9%였다. 이는 ‘캔터베리 외 지역 주민’(5%)보다 4%p 높은 수치였다. 매우 짧은 기간에 지진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높은 종교 전환율을 보인 것이다.
- 반대로 지진을 경험한 캔터베리 지역 주민 중 종교인이었다가 무종교인으로 전환한 비율은 5%였는데, 이는 ‘캔터베리 외 지역 주민’ 7%보다 2%p 낮았다. 즉 지진을 경험한 층에서 무종교인으로의 전환율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 전염병, 지진 등 외부의 위기 경험이 종교적 신앙심을 고양하거나 종교를 새로 갖게 하는 등의 종교성 강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뉴질랜드 지진이 종교전환에 미친 영향(캔터베리 지역 주민 vs 캔터베리 외 지역 주민)



*자료 출처 : PLOS, 2012.12.05. 'Faith after an Earthquake: A Longitudinal Study of Religion and Perceived Health before and after the 2011 Christchurch New Zealand Earthquake' (2009년과 2011년 조사, 18세 이상 성인 3,745명, 우편 설문 조사)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049648#pone-0049648-t001>

**캔터베리 지진(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은 2010년 9월 4일 7.1규모로 발생했는데, 이후 2011년 2월 22일까지 여진으로 인해 185명 사망한 대규모 지진 사태
https://ko.wikipedia.org/wiki/2011년_크라이스트처치_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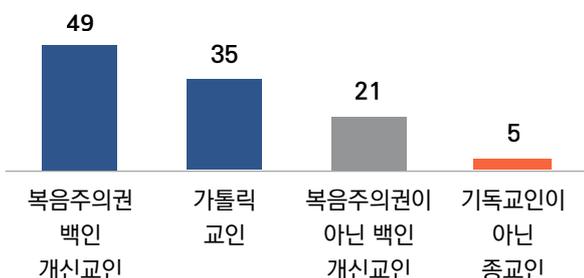
2



백인 개신교인 2명 중 1명, '코로나19로 믿음 성장했다!'

- 미국 기독교 그룹 중 '복음주의 백인 개신교인'의 49%가 '코로나19 이후 믿음이 성장했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톨릭교인' 35%, '복음주의권 외 백인 개신교인' 21%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 경우 5%만이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응답해 다른 그룹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독교인(개신교+가톨릭)이 재난 등의 큰 위기 경험을 통해서 신앙적 의미를 찾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신앙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미국 종교 그룹별 '코로나19 이후 믿음이 성장했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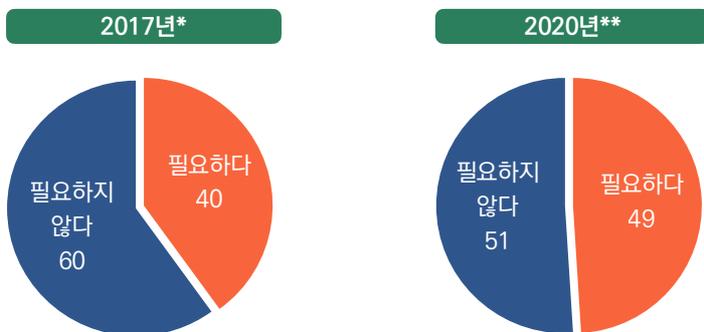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PEW RESEARCH CENTER, 'More Americans Than People in Other Advanced Economies Say COVID-19 Has Strengthened Religious Faith' 2021.01.27. (경제 선진국 14개국, 18세 이상 성인 14,276명, 전화 조사, 2020.6.10.-08.03)

***복음주의 개신교(Evangelical Protestants)는 성경 무오와 예수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 개인적 회심을 강조하고, 전도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에 반해 복음주의권이 아닌 개신교인은 미국 내 주류 개신교(Mainline Protestants)로 분류되는데 에큐메니컬 운동과 사회복음, 인권 여성 운동 등의 사회 정의를 좀 더 치중한다.

● 한국 무종교인, '종교 필요성 느낀다' 2017년 40% → 2020년 49%

- 한국인 역시 종교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 기간 중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종교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이 40%였는데,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인 8월 조사 결과 49%로 나타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종교의 필요성 인식 변화(한국, 무종교인 대상)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제4차 추적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17.09.22~10.20)

** 자료출처 : 예정합동교단, '코로나19 이후 교회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8.13~20) → 여기서는 일반 국민 중 무종교인만 대상으로 재분석하여 제시함

3



자신의 삶에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종교적 신앙심 더 강해져!

-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코로나19가 종교적 신앙(종교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룹이 '그 외 그룹'**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종교적 신앙심이 더 강해졌다는 응답이 높았다.
-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룹의 49%가 코로나19로 인해 종교적 신앙심이 더 강해졌다고 응답한 반면 그 외 그룹에서는 6%로 응답해, 두 그룹 간 차이가 43%p로 가장 컸다.
- 한국은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룹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심이 강해졌다는 비율이 30%로 중간 정도 수준이나 스페인이나 미국 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수치를 보였다

[그림] '코로나19로 인해 종교적 신앙심 강해졌다' 응답률 (%)



*자료 출처 : PEW RESEARCH CENTER, 'More Americans Than People in Other Advanced Economies Say COVID-19 Has Strengthened Religious Faith' 2021.01.27.(경제 선진국 14개국, 18세 이상 성인 14,276명, 전화 조사, 2020.6.10.-08.03)

**그 외 그룹 : '어느 정도 중요+별로/전혀 중요하지 않음'의 수치를 말함

●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코로나19로 종교적 신앙심 더 강해져!

- 코로나19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 수준의 관계를 보면 '저소득층'에게서 '고소득층'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종교적 신앙심이 더 강해졌다 응답이 높았다.
- 미국은 '저소득층'의 34%가 코로나19가 자신의 종교적 신앙심을 더 강화시켰다고 응답한 반면 '고소득층'은 22%로 응답해 두 소득 계층 간 차이가 12%p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컸다.
-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 13%, '고소득층' 8%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코로나19가 자신의 신앙을 강화시켰다는 응답이 높는데, 타 국가와 비교하면 소득 수준별 차이가 5%p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그림] '코로나19가 종교적 신앙을 더 강화시켰다' 응답률(고소득층 vs 저소득층)



*자료 출처 : PEW RESEARCH CENTER, 'More Americans Than People in Other Advanced Economies Say COVID-19 Has Strengthened Religious Faith' 2021.01.27.(경제 선진국 14개국, 18세 이상 성인 14,276명, 전화 조사, 2020.6.10.-08.03)

**그 외 그룹 : '어느 정도 중요+별로/전혀 중요하지 않음'의 수치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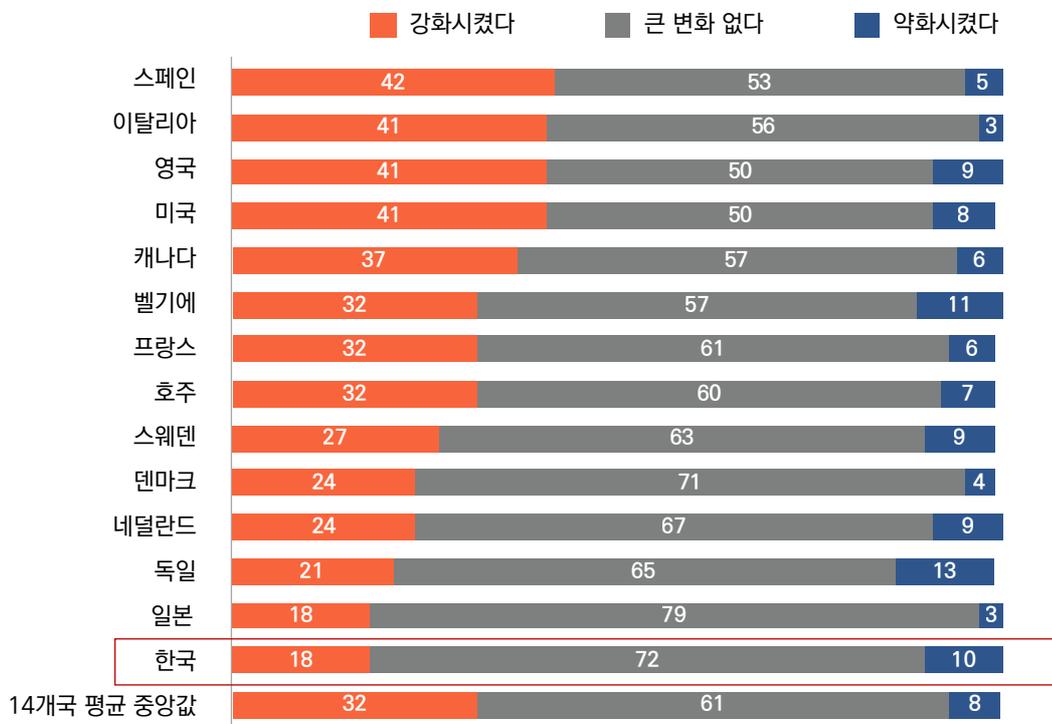
4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결속력이 ‘더 강해졌다’ 32%, ‘약해졌다’ 8%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결속력 변화 정도에 대해 14개국 평균(중앙값)은 ‘더 강해졌다’ 32%, ‘더 약해졌다’ 8%로, 코로나19가 가족 관계 강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가족 관계가 ‘더 강해졌다’ 응답률에 있어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미국’이 가장 높았다.
- ‘한국’은 18%로 ‘일본’과 함께 가장 낮아, 가족 결속력에 있어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 시점에서의 각 나라별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인식 정도, 심각성이 다름에 유의**)

[그림] 코로나19가 가족의 결속력에 미친 영향 (%)



*자료 출처 : PEW RESEARCH CENTER, 'More Americans Than People in Other Advanced Economies Say COVID-19 Has Strengthened Religious Faith' 2021.01.27. (경제 선진국 14개국, 18세 이상 성인 14,276명, 전화 조사, 2020.6.10.-08.03)

**코로나19의 가족 관계 결속력 영향도 조사결과를 각 나라별 코로나 감염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석시 주의를 요함

※(Note) 각 국가의 조사시기별 코로나 심각성 상황

- 미국은 조사 기간에 서서히 확진자 수 증가, 스페인/호주/일본은 1차 폭등 후 안정기 후에 다시 급격한 재폭등 상황, 영국/독일/벨기에/스웨덴/캐나다/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는 4-5월 확진자 폭등 후 거리두기 강화로 대체로 안정적 상황, 한국은 50명 내외에서 14개국 중 가장 적은 확진자 수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상태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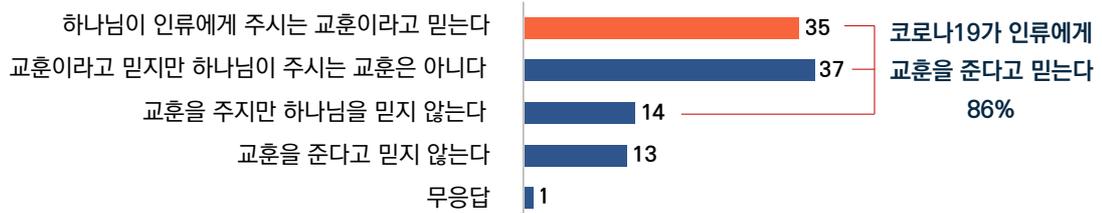
5



미국인,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교훈을 준다고 믿는다’ 86%

- 대부분의 미국인(86%)은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교훈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미국인의 35%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는다’고 응답했다.

[그림]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 인식 (%)



*자료 출처 : PEW RESEARCH CENTER, 2020.10.8., 'What Lessons Do Americans See for Humanity in the Pandemic?(미국, 성인 남녀 1,633명, 웹 조사, 2020.06.01-07.19)
<https://www.pewforum.org/essay/what-lessons-do-americans-see-for-humanity-in-the-pandemic/>



시사점

인류는 역사상 많은 질병과 재해를 경험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 고통이 왜 발생했는지,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어떤 의미인지 질문하게 된다. 종교인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자신을 지켜줘야 할 종교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종교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된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철학적, 종교적 영역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2차대전 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냈는데, 이 책의 원제가 <Man's Searching for Meaning>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학살의 공포 앞에서 그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공포와 몸부림을 넘어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또 토마스 G 롱은 그의 책 <고통과 씨름하다>에서 175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대지진이 엄습하여 수 천 명이 사망하고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든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고난이 신앙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런 책을 통하지 않고도 이미 성경은 고난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태도에 대해 여러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욘 23:10)라는 욘의 고백이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23~24)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고난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더 가치있고 거룩한 것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1년 넘게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은 코로나19는 어떠할까? 코로나19도 인류에게 삶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8쪽). 많은 사람이 종교를 떠나거나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남는 세속화 시대에 코로나19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더 찾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지진 지역에서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인이 되는 비율이 지진이 없던 지역보다 더 높았다는 조사 결과(4쪽)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 더 강해졌다는 조사 결과(3쪽)는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은 종교를 더 필요로 한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재난이 종교적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은 주로 기독교(가톨릭 포함), 특히 그 가운데 복음주의권 개신교인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5쪽).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본문의 퓨리서치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종교성이 강해진 서양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성에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14개국 전체 중 종교적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3쪽).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 개신교인 신앙이 약해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넘버즈 82호).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서양은 재난의 고통이 종교적 성찰로 이어지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지 고민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종교의 기능이 삶의 의미성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세상에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할 때, 한국 교회가 종교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이것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요 과제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및 대면 예배 현황>
미국의 개신교인,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코로나19 대응, 자랑스럽다' 86%
2. <공공/민간 부분 부패 실태>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공공 행정 분야, '건축/건설 공사 부문'(69%)과
법조 부문(69%)이 가장 높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및 미국 교회의 대면 예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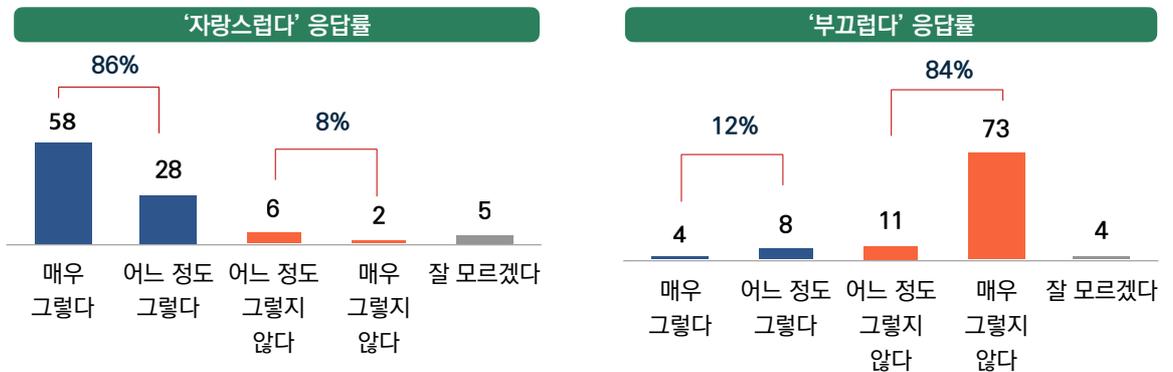
1



미국의 개신교인,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코로나19 대응, 자랑스럽다' 86%

- 최근 미국 라이프웨이리서치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출석하는 미국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회 생활 및 대면 예배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회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관한 인식과 관련해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코로나19 대응이 자랑스럽다'에 86%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인이 '출석 교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대로 교회 대응이 부끄러운지에 대해서는 12%가 '부끄럽다'에 동의한 반면, 8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자랑스럽다'가 '부끄럽다' 응답보다 7배 이상 높았다.

[그림] 미국 개신교인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출석교회 평가(자랑스럽다 vs 부끄럽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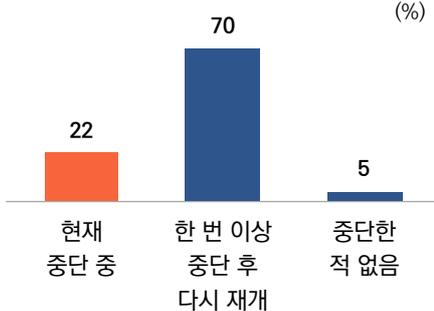


*자료 출처 : LifewayResearch, 'Protestant Churchgoers Views on Church Participation during COVID-19', 2021.03.23.(미국 성인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5.-18)

● 미국 개신교인, '코로나19로 인해 출석 교회의 대면 예배 현재 중단한 상태다' 22%

- 미국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교회의 대면 예배 현황을 질문한 결과, '현재 중단 중' 22%, '한 번 이상 중단 후 다시 재개' 70%로, 5명 중 1명 이상이 출석 교회가 현재 대면예배를 중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출석 교회의 대면 예배 현황(미국인) (%)



*자료 출처 : LifewayResearch, 'Protestant Churchgoers Views on Church Participation during COVID-19', 2021.03.23.(미국 성인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5.-18)

● 미국 개신교인, ‘출석 교회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 제공한다’ 84%

-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석 교회의 예배 형태를 질문했는데, 실시간 온라인 예배 84%, 녹화된 예배 온라인 제공 76%로 나타났으며,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와 야외 예배드리는 경우는 각각 30%,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작년 4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석 교회가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61%였음)

[그림] 미국 개신교인의 출석 교회가 제공하는 예배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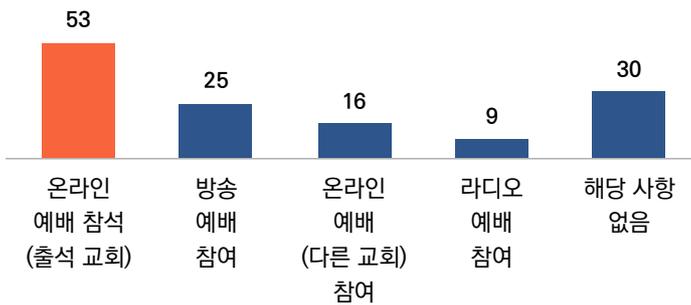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LifewayResearch, 'Protestant Churchgoers Views on Church Participation during COVID-19', 2021.03.23.(미국 성인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5.-18)

● 미국 개신교인, 올해 1월 중 ‘온라인 예배 참여했다’ 53%

- 미국 개신교인들의 올해 1월 중 출석 교회 온라인 예배 참여율은 53%로 나타났으며, 4명 중 1명 가량은 방송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미국 개신교인들의 올해 1월 중 예배 참여 경험율(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LifewayResearch, 'Protestant Churchgoers Views on Church Participation during COVID-19', 2021.03.23.(미국 성인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5.-18)

저희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는 향후 위 미국 조사 결과와 한국 개신교인 조사를 동일하게 비교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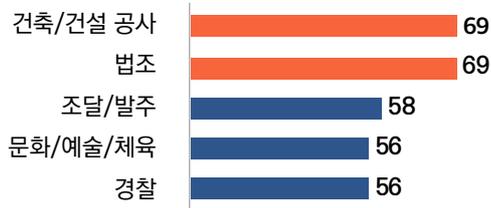
2. 공공/민간 부문 부패 실태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공공 행정 분야, '건축/건설 공사 부문'(69%)과 '법조 부문'(69%)이 가장 높아

-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사업체 종사자 1000명 대상), 공공 행정 분야 중 '건축/건설 공사부문'이 가장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조사는 NH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실시한 조사결과로 이미 건축/건설 부문의 부패인식이 만연되어 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행정기관별로는 지방의회가 가장 부패가 심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부패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행정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상위 5위) (%)



[그림] 행정 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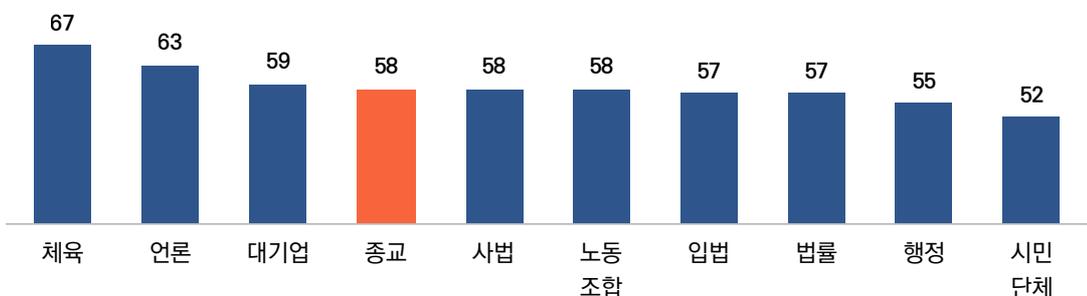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데이터로 보는 공공 및 민간부문 부패 실태', 2021.04.06 (전국 사업체종사자, 1000명, 2020.07.30.-09.10)
 **심각성 : '매우+약간' 비율

● 종교 분야, 부정부패 '심각하다' 58%(16개 부문 중 4위권)

- 각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16개 부문 중 체육 부문이 67%로 가장 부패가 심한 곳으로 인식됐다. 이는 체육 분야의 (성)폭력 비위 행위, 인권 침해 등의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 공직 분야의 경우, 입법/사법/행정 등 3개 모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패 심각성을 지적했다.
- 종교 분야의 부패 인식은 58%로 2019년 50%에서 8%p 증가한 수치로, 전체 16개 부문중 4위권으로 부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상위 10위) (%)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데이터로 보는 공공 및 민간부문 부패 실태', 2021.04.06 (전국 사업체종사자, 1000명, 2020.07.30.-09.10)
 **심각성 : '매우+약간' 비율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일
반

[코로나에 지갑 달아도 '인생 한방' 복권 소비는 역대 최대](#)

중앙일보_2021.04.13.

[2021 직장생활 평가와 만족도](#)

중앙일보_202104.14.

사
회

["백신 맞으면 감염확률 7분의 1로 줄어... 30세이상 접종이 더 이득"](#)

동아일보_2021.04.12.

[코로나 직격탄 맞은 천주교..70년 만에 '신자 증가폭' 최저](#)

동아일보_2021.04.13.

경
제

["10대부터 50대까지"...전 세대가 '쿠팡'으로 쇼핑한다](#)

서울경제_2021.04.13.

[경총, "주요기업 92%가 재택근무... 정상근무 대비 재택근무 생산성 83%](#)

연합뉴스_2021.04.11.

환
경

[지구 온난화 지속하면 댐 역할 남극 빙봉 3분의 1 이상 사라져](#)

연합뉴스_2021.04.13.

[지구를 위한 작은 움직임... "채식으로 친환경 삶 실천해요"](#)

동아일보_2021.04.13.

다
음
세
대

[중·고교생 60% "결혼? 안 해도 그만"...22% "자녀 안 낳아"](#)

경향신문_2021.04.14.

[\(학력격차 문제\) 코로나가 키운 '곱셈 못하는' 중2](#)

경향신문_2021.04.13.

[청소년 늦잠 자는 이유..... 성인보다 '생체시계' 2시간 늦어](#)

조선일보_2021.04.1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4월 7일 보궐선거일 이후 2030세대를 일컫는 MZ세대에 대한 기사가 각 언론에서 많이 등장했다.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MZ세대 관련 기사를 모아보았다.펴본다.

이
슈
큐
레
이
션

[1. MZ세대를 설명하는 4대 키워드 - 공정](#)

중앙일보_2021.04.10.

[2. MZ세대를 설명하는 4대 키워드 - 일자리](#)

중앙일보_2021.04.10.

[3. MZ세대를 설명하는 4대 키워드 - 젠더](#)

중앙일보_2021.04.10.

[4. MZ세대를 설명하는 4대 키워드 -디지털 네이티브](#)

중앙일보_2021.04.10.

[5. "소유보다 경험" 물건 필요하면 중고품부터 찾는 MZ세대](#)

중앙일보_2021.04.14.

[6. "샤넬백보다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림에 지갑여는 MZ세대](#)

중앙일보_2021.04.13.

[7. "매출 줄었는데 임원연봉 왜" 발칙한 MZ, 기성세대엔 도발](#)

중앙일보_2021.04.05.

[8. MZ세대 "진보-보수는 없다, '어느 당'보다 '내 이슈'에 더 민감할뿐"](#)

한겨레신문_2021.04.14.

[9. 20대 연령층의 정치 성향 분석](#)

한국일보_2021.04.1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재)기독교선교학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 (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용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GoodTV,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볕회